

# 주일오후 가정예배 순서지

-일 시 : 2022년 3월 20일 오후 2시 30분

-장 소 : 가족들과 함께 정해진 장소

- 묵상기도 / 각 자
- 기 원 / 인도자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경배찬송 / 새288장(통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 기 도 / 가족 중에서
- 성경봉독 / “출 26:15-29”(구약p.121) / 가족 중에서
- 말 씀 / “조각목 널판이 상징하는 의미”/인도자

조각목 널판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거기에 금을 입힌 것은 믿음 안에 있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널판’, ‘은 받침’, ‘널판의 축’, ‘널판의 띠’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 1. 널판의 의미입니다.

성막은 예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흠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조각목 널판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상징하듯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금은 믿음이요 은혜입니다. 각기 다른 고장에서 자란 식당 나무들이 베임을 당하여 성막 안에 모여 온 것처럼 세상에 흠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통하여 세상에서 풀림을 당하고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은 받침 위에 널판이 세워진 것처럼, 믿음으로 그리스도 위에 서 있지 아니하는 자는 교회의 참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 2. 은 받침입니다.

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전으로 낸 것입니다. 이 은으로 널판의 밑받침을 만들었고 또 뜰 사면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같고리 그리고 그 기둥의 머리를 입혔습니다. 즉 널판의 밑받침은 성소와 지성소를 떠받치는 데 쓰였고 기둥의 가름대와 같고리, 기둥의 머리를 입힌 것은 사면의 세마포장을 떠받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렇듯 속전으로 드린 은은 속죄의 제물로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속전으로 드린 은이 성막을 떠받치고 있듯이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대속주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소는 거룩한 곳이어야 하므로 속죄된 “거룩”이 그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이외에 어떠한 선행이나 인간적인 의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기초가 됩니다.

## 3. 널판 축의 의미입니다.

성막의 널판이 은 받침 위에 튼튼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널판 밑에 달려 있는 축 때문입니다. ‘축’에 대한 히브리어의 뜻은 ‘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의 손으로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며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에게만 있

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성막의 조각목 널판은 은 받침 위에 축을 박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막의 널판이 속전으로 만든 은 받침 위에 축을 박고 서 있었던 것처럼, 죄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으며 예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안전은 예수님께 뜻을 내리고 있을 때입니다. 아무리 인생의 풍랑이 심하게 일더라도 예수님 안에 믿음의 뜻을 내리고 있을 때는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방패요,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 4. 널판을 연결하는 띠의 의미입니다.

조각목 널판을 연결하는 이 띠는 5개로 되어 있고 모두 금을 입혔으며 그 가운데 한 띠는 널판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띠 하나만으로도 널판들을 단단히 연결시킬 수가 있으나 더욱 견고히 연합시키기 위하여 네 개의 띠가 더 사용되었습니다. 이 네 개의 띠를 매기 위하여 널판마다 네 개의 금고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즉 성막의 널판은 다섯 개의 띠와 은 받침, 모퉁이 널판으로 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과 연합을 의미합니다. 널판을 관통하였다는 것은 성령께서 거둔 성도들의 믿음 속에 거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울 역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널판이 띠로 하나가 된 것처럼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을 연합된 것입니다. 또한 이 띠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팔로 안아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이 띠가 모든 널판을 하나로 묶고 있듯이 이 띠는 모든 성도를 하나로 묶는 진리의 띠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의 말씀, 하나의 성경, 하나의 진리로 매여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간추려 보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으며, 성막을 구성하고 있는 조각목 하나하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을 뜻하고, 은 받침은 속죄로 인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을 상징하며, 은 받침 위의 축은 성도의 믿음을, 그리고 널판을 연결하는 띠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연합을 뜻합니다. 이 성도의 연합은 하나의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에 의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 기 도 / 가족 중에서
- 파송찬송 / 새289장(통208)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 주기도문 / 다같이

## \*광고 :

1. 금주 수요일(3월 23일) 저녁 예배는 본당에서 예배로 드려집니다.
2. 교우들의 건강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빠른 종식과 수고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과 모든 공무원을 위해, 그리고 학생의 정상적인 등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3.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소독 등의 생활화와 많은 사람과의 접촉 및 모임 자제에 힘쓰며, 3월에도 거리 두기 삶을 잘 실천하여 건강하도록 기도합니다.